

REduce.
use.
cycle.
p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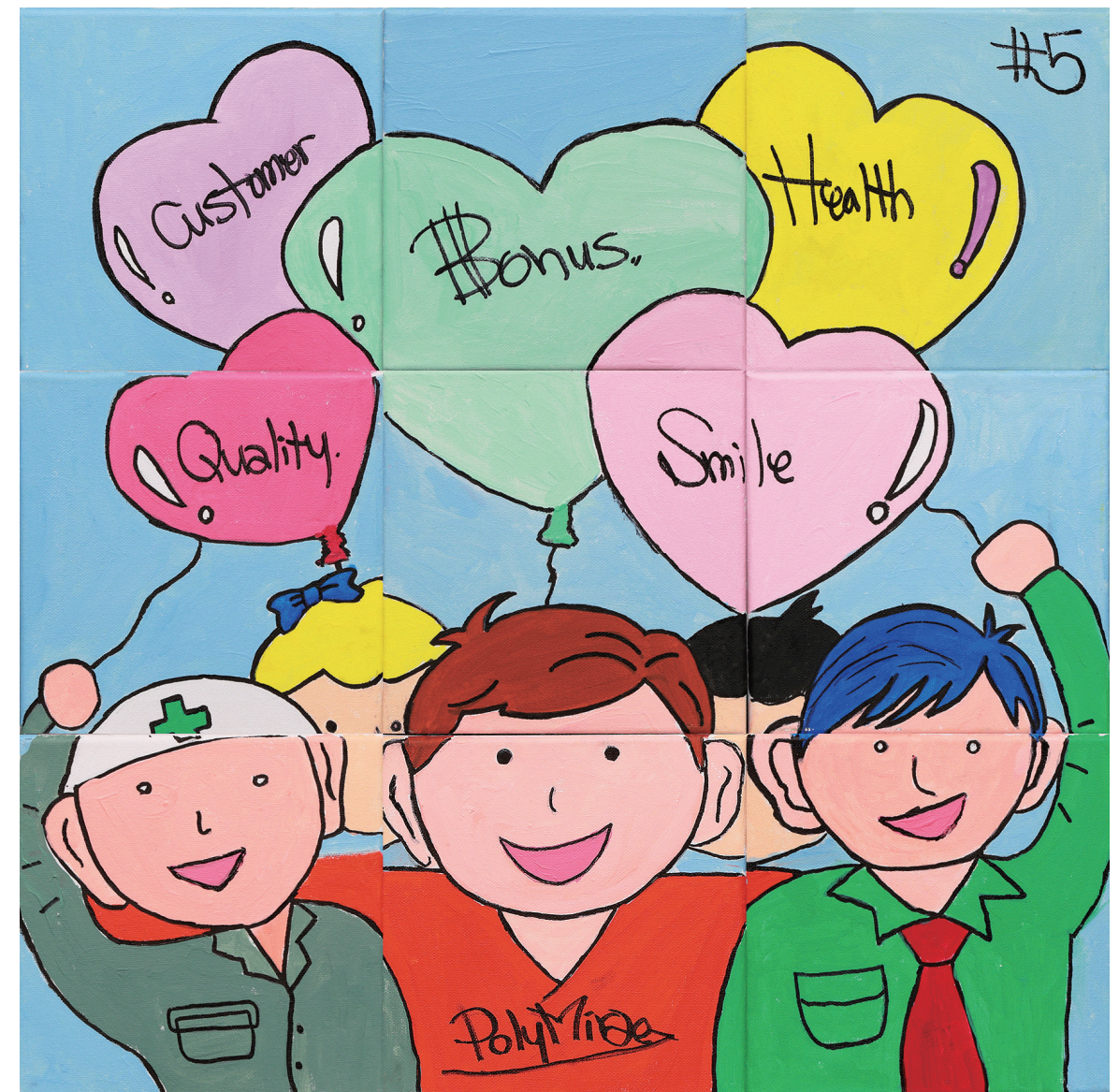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적인 물결이
폴리미래의 재생 솔루션을 만나 커다란 파도가 됩니다.

PolyMirae, Shaping a better future

폴리미래의 Circular PP는 Brandowner와 고객의 Needs를 충족하는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환경과 품질을 생각하는 고객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입니다.
폴리미래는 항상 환경을 생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행동하며 최적의 재생 PP를 생산합니다.

Poly Village

2024 **Spring** | Vol.51



PolyMirae,
Shaping a better future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 현실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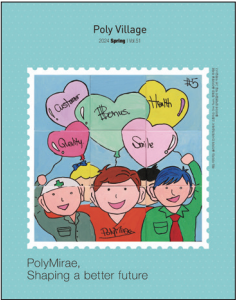
There is nothing like dream to create the future.
Utopia to-day, flesh and blood tomorrow.

빅토르 위고 Victor Hugo

CONTENTS

Poly Village

Vol.51 | 2024 Spring



PolyMirae Magazine

폴리마을 통권 제51호
발행인 미첼 킬린(MITCHELL KILLEEN)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Poly Village Vol.51 2024 Spring
발행일 2024년 3월 26일
기획 사보기획팀
디자인·제작 에브리명디자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7층
TEL [02]2167-8914

With Poly PEOPLE

- 02 **생각의 깊이**
- 06 **CEO 레터**
친애하는 폴리미래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미첼 킬린(Mitchell Killeen) 대표이사/사장
- 08 **VISION**
New Vision and Strategy
PolyMirae, Shaping a better future
폴리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 10 **아주 특별한 만남**
폴리미래인으로 누구보다 값진 갑진년을 보내겠습니다!
신입 사원
- 16 **자랑 좀 할게요!**
폴리미래의 에너지 드링크! 사업자산관리팀을 소개합니다
사업자산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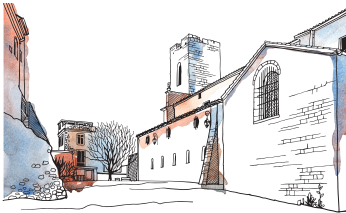
With Poly ISSUE

- 20 **오늘 폴리미래**
위기를 기회로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폴리미래
제조담당임원 이길중 상무
- 22 **사내활동**
여주시청과 함께한 폴리미래 봉사활동 2023
- 동화의 거리 벽화 그리기와 김장 나눔
- 24 **뉴스 브리핑**
- 29 **인사동정**
- 30 **테마 리포트**
왜 지금 다시 철학인가
정하윤(미술사가, 미술평론가)



With Poly LIFE

- 34 **트렌드 인포**
공간, 시간, 취향이 모이는 곳
‘지역’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 : 로컬리즘(Localism)
천국천(건축사,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38 **컬처 & 컬처**
바쁜 일상에서도 컬처 라이프는 못 잃어!
- 42 **사내활동**
2024년을 맞이하는 폴리미래인의 새해 다짐
- 44 **퀴즈**



친애하는 폴리미래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먼저 모든 폴리미래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폴리미래는 안전을 우리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 분야에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One Team으로 이해관계자 및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토끼해를 맞이하여 신중하면서도 민첩하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폴리미래는 “Shaping a better future”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One Team으로 업무에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하나 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갑진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폴리미래는 올해 이미 8개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으며, 더욱 다양한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여 신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폴리미래는 안전제일, 팀워크를 토대로 수익성 있는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력을 핵심 가치로 “Shaping a better future”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에 폴리미래는 비전과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폴리미래는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집중으로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폴리미래는 한국에서 인정받는 ‘Safety Leader’로서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모든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지난 2023년 10월 4일부로 무재해 4200일(14배수)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유능하고 열정적인 팀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계적 재활용 분야의 순환 경제 신사업을 가속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고, 공급업체로부터 첨단 재활용 및 재생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Global Recycled Standard(GRS)’,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자회사인 울산PP(UPP)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어려운 사업 환경을 헤쳐 나갈 것이며 향후에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우리의 우수한 제품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폴리프로필렌 업계에서 더 강하고 자랑스러운, 가장 훌륭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청룡과 같은 용기와 자신감으로 창의력과 열정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미첼 킬린(Mitchell Killeen) 대표이사/사장

LEADER'S MESSAGE

New Vision and Strategy PolyMirae, Shaping a better future

폴리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Our Vision

Our purpose

PolyMirae, Shaping a better future

폴리미래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Our Values

Our behaviors and
priorities



**Profitable
Innovation**

수익성 있는 혁신



**Sustainable
Growth**

지속 가능한 성장



Inclusivity

포용력

Our Foundation

Our commitment
to one another



One Team
원 팀



Safety First
안전제일



QR 스캔으로
Vision 영상
바로가기

Our Strategy

How we deliver our vision



Refocus and upgrade our proven strategy

입증된 전략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 업그레이드



Preferred partner for sustainable solutions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상의 파트너



Foster one proud and innovative team

자랑스럽고 혁신적인 원 팀 육성

Shaping a better future

폴리미래는 2023년 9월, 비전 및 가치, 전략 최신화를 통해 “Shaping a better future”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및 가치, 전략은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 직원이 참여한 전사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상향식(Bottom-up)으로 도출된 폴리미래의 경쟁력과 미래의 사업 방향성 및 가치를 기반으로 사내 경영진 회의(Management Committee)를 통해 결정됐고, 결정된 비전 및 가치 전략에 대한 직원들의 피드백을 수렴한 후 2023년 9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폴리미래의 모든 구성원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는 사업 환경 속에 더욱더 One Team의 팀워크와 뛰어난 안전관리 능력을 토대로 지속적인 기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며, 더불어 다가올 탈탄소와 순환 경제(Decarbonization and Circularity)의 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며,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조직 내 다양성과 형평성, 소속감을 향상시켜 자회사인 울산PP(UPP)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 모두의 포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폴리미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로 선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는 지금까지 폴리미래가 우수한 성과를 이어오면서 입증된 안전과 공정, 비즈니스 분야의 전략들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과 훌륭한 주주 및 관계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계적 재활용(Mechanical Recycling)과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상의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인재 육성을 통해 자랑스럽고 혁신적인 팀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폴리미래는 2024년 1월, 새롭게 수립한 비전 및 가치, 전략을 기반으로 이와 연계된 2024년 전사 목표를 수립했으며, 기존의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과도 연계하여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 및 가치, 전략을 조직문화 및 인재 육성 등 회사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직원들의 몰입도와 권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리 원대하고 훌륭한 비전과 전략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폴리미래는 이번 비전 및 전략 최신화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가치와 열정을 이끌어냈음은 물론 그것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의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피드백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폴리미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사노사협력팀 이정균 팀장

폴리미래人으로 누구보다 값진 갑진년을 보내겠습니다!

폴리미래人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동료들의 다짐을 들어봅니다.
희망을 품고 멋지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청룡처럼
장차 폴리미래의 밝은 비전이 될 뉴 페이스들과 반갑게 인사하세요.



20
24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생산1팀 김수용 사원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현장전문직으로 입사한 생산1팀 김수용 사원입니다.

무더웠던 7월, 반가운 서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가 생생합니다. 인적성과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선배 직원분들이 지원자들을 대해주는 모습이 남다르게 느껴져 폴리미래라는 회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폴리미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Safety First'라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작업 전후로 현장을 재확인하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겠습니다. 항상 폴리미래만의 핵심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되뇌며 업무를 수행하고, 무재해 대기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헌신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밝은 미소로 임하겠습니다!

생산1팀 김신원 사원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현장전문직으로 입사한 생산1팀 김신원 사원입니다.

입사 전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인은 '안전'이었습니다. 폴리미래 최종 합격 후 회사 슬로건인 "안전하지 않으면 시키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를 통해 회사 최우선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기간 중 동기들, 선배님들께서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본인의 일처럼 가르쳐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게 도움 주신 선배님들과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열심히 배운 내용들을 발판 삼아 처음과 같이 간절함과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폴리미래의 성장과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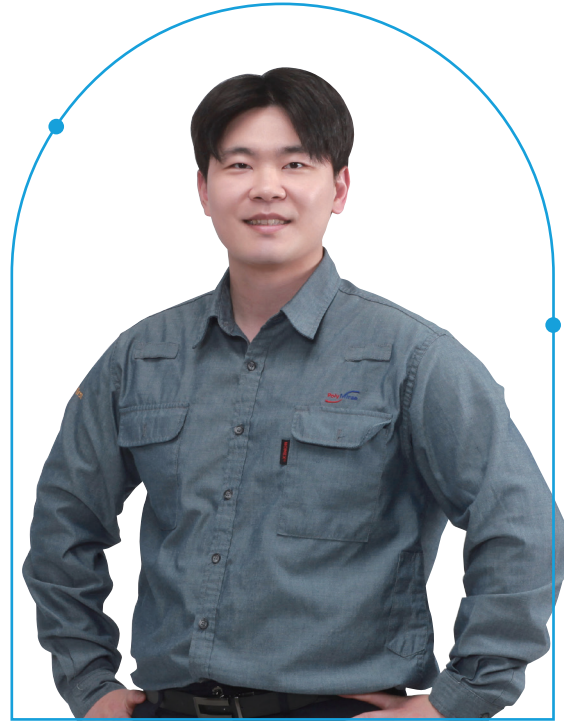


No.1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생산1팀 김유선 사원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현장전문직으로 입사한 생산1팀 김유선 사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던 중 PP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폴리미래의 채용 공고를 접하고 지원했습니다. 전기공학을 공부하면서 대학 시절부터 석유 화학 회사의 오퍼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높은 경쟁률이었지만 폴리미래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게 되어 아직도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현재는 생산1팀의 일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며 No.1 오퍼레이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 이외의 영역에서도 적응력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 최선을 다해 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준 폴리미래에 보답하겠습니다!

생산3팀 배청훈 사원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현장전문직으로 입사한 생산3팀 배청훈 사원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 덕분에 폴리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대해 조사하면서 폴리미래는 안전한 회사, 독보적인 PP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폴리미래에 입사 후 교육 기간 동안 모르는 부분을 선배님들께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이를 통해 공정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따뜻한 관심으로 후배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선배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우수한 오퍼레이터로 성장해 새로운 기회를 준 폴리미래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며 좋은 선배로 거듭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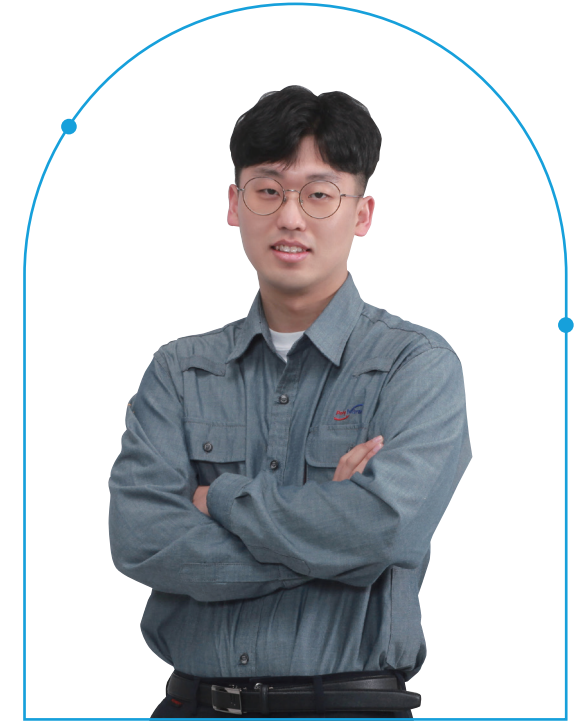
생산3팀 신동완 사원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현장전문직으로 입사한 생산3팀 신동완 사원입니다.

학업을 통해 전공 지식을 쌓으며 여수 국가산단에 취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리미래 채용 공고를 접하고 지원했으며, 최종 합격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인적성 시험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기에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인턴 기간이 끝나고 팀의 일원이 됐으며, 생산3팀 선배님들께서 친절하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셔서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잘 가르쳐주셨듯이, 저 또한 미래의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께 많이 배워가며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중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생산2팀 최산 사원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현장전문직으로 입사한 생산2팀 최산 사원입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 중 오랜 고민 끝에 현장전문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다시 전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점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패기 있게 '취업' 현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마음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폴리미래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의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는 선배님들과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동기들 덕분에 하루하루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 첫 직장이라는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보완해가면서 하루빨리 폴리미래인으로 제 능력을 펼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폴리미래인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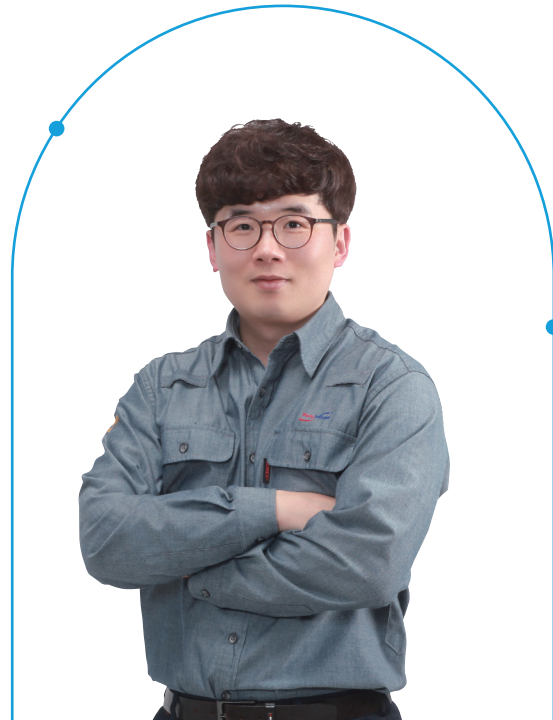
공무팀 김상준 대리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공무팀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김상준 대리입니다.

제조업에서의 경력을 쌓던 중 폴리미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 중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통해 입사하게 됐고, 교육을 받으면서 범용PP부터 Specialty 제품까지 취급하며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PP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으며 생산하는 제품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더욱 애착이 느껴집니다.

공무팀의 일원으로서, 무재해뿐만 아니라 공장의 전기 사고를 비롯한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 정비해 사고 후 조치가 아닌 사고 발생 전 위험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업무에 유연히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공정팀 신동진 대리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공정팀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신동진 대리입니다.

타사에 재직하며 중합물의 소재는 다르지만 주로 생산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부분적으로 QA, 차별화 TF, 중합 후 공정(제품 실현) 신규 프로젝트 시운전 등의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폴리미래에서 '카멜레온'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제 목소리가 반영되고 Leading해야 하는 업무 상황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며, 경청을 하고 Following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의를 갖춰 경청하며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폴리미래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생산1팀 김동민 대리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생산1팀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김동민 대리입니다.

먼저 폴리미래 입사를 준비하며 《폴리마을》을 읽고 '꼭 합격해서 폴리마을에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꿈이 실현돼 기쁩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생산1팀의 선배 엔지니어 및 오퍼레이터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으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면접 때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공장의 생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입사 후 2개의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폴리미래의 'Safety First'에 발맞춰 생산1팀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저도 폴리미래 One Team의 팀원으로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 팀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겠습니다!

내수영업팀 김노경 차장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내수영업팀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김노경 차장입니다.

먼저 좋은 기회를 통해 폴리미래에 입사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폴리미래 제품은 이전 직장에서 자동차용 Compounding 소재 개발을 하며 접할 수 있었으며, 당시 품질이 우수한 고성능 Specialty 제품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감명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첼로를 배우고 대학교에서는 관현악단에 속해 연주자 및 지휘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속하며 모두가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단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폴리미래에서 추구하는 'One Team'이라는 가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폴리미래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미래의 에너지 드링크! 사업자산관리팀을 소개합니다

폴리미래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품 출하와 재고 관리,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업자산관리팀의
주요 이슈는 뭔가요?

사업자산관리팀은 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제품 생산계획 수립부터 판매 오더 진행, 비용절감을 위한 출하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재고 관리 등 폴리미래의 효율적인 자산 활용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분석하고, 예측한 시장가격 및 영업 수익성을 회사의 단기·중기·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며, 품질 및 물류 등의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고객과의 파트너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비즈니스 다각화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 및 신규 시스템 구축

최근 폴리미래의 비즈니스 환경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와 SK Advanced의 합작회사인 울산PP(UPP)에서 생산한 폴리프로필렌의 재판매 사업과 유럽 시장 확장, Circular PP 비즈니스의 확대, 자체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등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효율적인 영업 업무 지원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신규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해상 물류대란에 따른 대응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홍해 수송 불안으로 아시아에서 유럽, 지중해, 중동 지역으로의 해상 운송료가 폭등하여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해상 물류대란은 점차 역내 지역의 운임 및 선박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래 취소까지 이어지는 등 수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폴리미래 시장개발팀은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매팀과 발 빠르게 협력하여 포워드 및 선사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운임 및 안정적인 선박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민첩한 대응으로 사업자산관리팀은 안정적으로 제품을 정시에 선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칭찬과 격려로 팀워크 다지기

사업자산관리팀의 업무는 회사 내외의 여러 부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업무 파트너가 많은 만큼 소통의 기술이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공유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필요한 부서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가 많을 때면 실수가 잦아지고, 실수로 인해 질책을 받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사업자산관리팀과 같은 지원 부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를 잘 해냈을 때 결과를 인정받기보다는, 실수를 했을 때 여파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힘들 때일수록 팀원 간에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팀워크를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업자산관리팀 팀원들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업자산
관리팀
구성원 소개

A. 김승현 팀장

#영업분석 #데이터분석 #해치지않아요

업무의 디테일을 챙기는 꼼꼼함과 더불어 일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김 팀장'

B. 백지원 주임

#행동대장 #업무베테랑 #휴먼에어가뭔가요

빠른 추진력과 실행력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팀의 행동대장

C. 이원재 주임

#스케줄러 #YESYES #유머는나의힘

영업도 생산도 모두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센스쟁이

D. 김희진 주임

#차분함 #씩씩한워킹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으로 에너지 넘치는 사업자산관리팀 내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숨은 조력자

E. 함선영 사원

#수출오더 #UPP지원 #프로일잘러

다양한 오더 진행 및 프로세스 개선 경험을 갖춘 베테랑 사원

F. 황인성 사원

#수출오더 #밝은인성

내수 오더를 거쳐 수출 오더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밝은 인성의 소유자

G. 안가나 사원

#내수오더 #프로학습러 #조곤조곤

묵묵히 내수 오더 및 팀 공통 업무를 서포트하는 든든한 조력자

H. 김동현 사원

#내수오더 #막내사원

내수 오더를 담당하며 유머러스한 막내이자 사업자산관리팀의 활력소

위기를 기회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폴리미래

제조담당임원 이길중 상무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폴리미래 모든 구성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폴리미래는 지난 2000년 9월 설립된 이래, 벌써 스무 살이 훌쩍 넘어 청년기에 접어든 성숙한 기업이 됐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지난 한 해를 보냈고, 2024년의 시장상황 또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이 열린 세계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장밋빛 회복을 기대했던 세계경제 또한 국지적 분쟁의 심화와 자국우선주의에 의한 보호무역 확대, 장기적 정권 유지를 위한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폴리미래 제품의 최대 수출국이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마저도 다양한 이유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세계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인 수출 경기 둔화와 더딘 내수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2020년 이후 신규 증설로 인해 과잉 공급이라는 하나의 짐을 더 짊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장 환경입니다. 다행히 폴리미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길러온 공정 운영 능력과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으며, 본사와 공장의 모든 직원이 원팀이 돼 신제품 개발과 시생산으로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영역으로의 제품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는 폴리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5가지 Key Activity를 중심으로 Operational Excellence를 향상시켜 한층 강화된 경쟁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AFETY FIRST

폴리미래는 11년 이상의 무사고 대기록이 보여주듯이 우수한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것의 근간은 기본과 룰을 지키고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제일 문화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구호인 “안전하지 않으면 시키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는 우리 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소중하다는 의식과 더불어 안전은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강한 주인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안전 문화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사에 새로운 일처럼 관리하고 철저한 사전 확인과 중복 확인을 통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ONE TEAM

폴리미래는 4개의 생산 라인과 150여 종이 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울산PP(UPP)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수주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민첩한 팀워크로 국내와 수출 시장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은 고객의 니즈부터 개발→시생산→평가→적기 공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PP 제품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과 본사의 개발 부서는 최적의 생산 라인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상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PROFITABLE INNOVATION

탁월하고 안정적인 운전과 품질관리는 폴리미래 수익 창출의 기초가 되며, 지속적인 개선과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은 향후 더 넓은 스펙트럼의 새로운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 Meltblown 제품과 Metocene 제품이 그랬으며, 현재의 Hipax 제품이 Specialty 제품으로, 향후 Circular 제품과 전기차 관련 제품이 그럴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장은 지속적인 운전 최적화와 공정기술 혁신을 통한 수익 확대에 노력할 것입니다.

POLYMIRAE VALUE ENHANCEMENT

폴리미래의 가치는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폴리미래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높은 의식과 업무 수준, 기술 수준 그리고 업무에 대한 몰입과 열정이 폴리미래 Value 산정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교육, 이를 위한 지원과 소그룹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폴리미래 Value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BASIC RULE & PRINCIPLE

우리는 서로 다른 삶과 생활방식으로 살아오다가 폴리미래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 회사에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주의보다는 조직을 위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다운, 선후배다운 같은 ‘다운’의 문화 구현과 더불어 공정한 룰과 원칙의 적용, 균형 잡힌 진행이 조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체념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폴리미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경험과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설립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가절감 혁신 활동을 벌였으며, 2012년과 2019년 어려운 시기에 도 개발 제품의 시생산을 확대해 새로운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미래의 DNA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폴리미래의 DNA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폴리미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믿고 한 팀이 돼 어려운 시장 환경을 폴리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여수시청과 함께한
폴리미래 봉사활동 2023

동화의 거리
벽화 그리기와
김장 나눔



2023년 11월 22일, 여수시청과 함께 여수 쌍봉동 일원에서 동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및 겨울철 김장 나눔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폴리미래가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나눔과 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폴리미래 임직원 및 정기명 여수시장, 쌍봉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정기명 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폴리미래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News Briefing + PolyMirae

2024 Spring

코트라 주관 <제18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참가

폴리미래는 2023년 8월 21~22일 양일간 코트라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채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매년 약 200개 기업과 약 2000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박람회로, 폴리미래는 2019년부터 매년 해당 박람회에 참가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폴리미래는 앞으로도 훌륭한 국내외 주주를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Value Proposition을 부각시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사노사협력팀 이동준 주임



무재해 4200일(14배수) 달성

폴리미래는 2023년 10월 14일부로 ‘무재해 4200일(14배수)’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폴리미래가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룬 성과이며, 지난 용성공장 정비 작업 및 공장 가동 중지와 재가동을 안전하게 마치고 달성한 성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폴리미래는 ‘Weekly Safety Talk’와 더불어 미첼 킬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이 참여하는 리더십 그룹 현장 순찰, 노조위원장과 함께 진행한 현장 순찰 활동 등 안전문화 향상과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사고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2023년 가족의 날 행사 ‘Family Day’

폴리미래는 2023년 11월 24~25일 양일간 여수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날 행사인 ‘Family Day’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폴리미래 직원 및 배우자를 초청해 뮤지컬 공연 <맘마미아>를 관람했다. 금번 가족의 날 행사에는 총 170명의 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했으며, 뮤지컬 관람 외에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직원 및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많은 임직원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인사노사협력팀 김정호 사원



폴리미래 ‘일회용품 사용 제로(Zero) 챌린지’ 참여

폴리미래는 2023년 9월 1일,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인 ‘일회용품 사용 제로(Zero) 챌린지’에 참여해 당사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로 챌린지’는 2023년 2월 환경부를 첫 주자로 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인식 제고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DL케미칼 김종현 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폴리미래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다음 챌린지를 위해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의 CEO 제이 컵 듀어(Jacob Duer)와 SK가스 윤병석 CEO를 추천했다.

영상 속에서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폴리미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임직원들이 원팀으로서 기업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당사 임직원들이 출연해 폴리미래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 포장용 백 개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수지를 개발 및 생산, 판매.
- 둘째, 유럽연합의 친환경 순환 경제 인증 ‘ISCC PLUS’와 국제 친환경 인증 ‘Global Recycled Standard(GRS)’ 획득을 통한 화학적 재활용 및 재생 원료의 사용 준비.
- 셋째, 종이 없는 업무환경 구축(Paperless) 도입, 다회용 컵 사용,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등 일상 속 폐기물 발생 최소화.
- 넷째, PP 제품이 갖는 물리적 특성과 기능성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량을 줄이며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지속.

마지막으로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폴리미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팀 유민희 과장



QR 스캔으로
영상 바로가기



News Briefing + PolyMirae

2024 Spring

2023년 하반기 전사 위기 대응 훈련

폴리미래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본사와 합동으로 전사가 참여하는 위기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4일 폴리미래 용성공장에서 하반기 전사 위기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매년 상반기 훈련은 '안전의 날(Global Safety Day)' 행사와 함께 폴리미래 여천공장에서 이뤄지며, 하반기 훈련은 용성·평여공장에서 번갈아가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여수 3개 공장이 모두 동일 수준의 위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훈련에서는 실제 상황을 상정해 1차로 본관 및 여천에 있는 공장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비상 문자를 받고 사고가 발생한 용성공장으로 출동했으며 2차로 본사 임직원들이 비상 문자를 받아 각 역할별 임무 카드에 따라 대응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진행했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HMC Polymers 우수 사례 벤치마킹

2023년 11월 26~30일, 폴리미래는 우수 사원을 대상으로 태국 HMC Polymers 공장 방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진행되었으며 양사 간의 우수한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개선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HMC Polymers는 HSE KPI를 비롯한 공정 안전 하이라이트 및 고소작업 개선 사항 등을 발표했으며, 폴리미래는 KPI 및 안전 활동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김태수 팀장

생산1팀(여천공장) 'Safety Management System(종합적 안전관리 시스템)' A등급 획득

2023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2023 Safety Management System(종합적 안전관리 시스템)' 감사가 폴리미래 여천공장에서 진행됐다. 금번 감사는 총 3명의 외부 감사원이 5일 동안 안전 관련 서류 검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폴리미래는 한 해 동안 빈번한 공장 가동 중지와 가동 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와 안전 이슈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감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A등급은 최상 등급으로 평가대상업체의 약 10% 정도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는 생산1팀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여천공장 직원들이 One Team으로 협력해 적극적으로 수검을 받은 결과이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전사의 종합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폴리미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정태형 대리

2023년 여수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워크숍 발표

폴리미래는 2023년 12월 7일, 하반기 여수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워크숍에 참가했다. 여수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여수 국가산단을 대표하는 안전관리 협의 기구이다. 금번 워크숍에서 폴리미래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해 준정량적 위험성평가 표준절차 작성 및 석유화학 공장 위험 요인 확인 등 2023년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각 회원사의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사고나 사고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험성평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김태수 팀장



2024년 여수공장 워크숍

폴리미래는 1월 25~26일 양일간 안전한 작업환경, 혁신적인 생산방법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여수공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각 팀은 팀별 중점 운영 방안과 개선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생산과 공정 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4년 판매 계획 및 직원 몰입도 향상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임직원과 공유하며 더 나은 작업환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직력 강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공정팀 서성오 대리



News Briefing + PolyMirae

2024 Spring

LyondellBasell(LYB) 이사 주관 타운홀 회의

지난 2월 7일 오프라인 이사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LYB 장가드브아(Jean Gadbois, SVP Manufacturing O&P EAI), 조지 바이(George Bai, Director O&P China JV and Program Management), 지미 슝(Jimmy Schop, Director Business Finance O&P EAI) 이사와 JV Director를 역임하고 있는 자크 허(Zach He)가 폴리미레 직원들과 타운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관한 장가드브아 이사는 LYB의 ‘DEI(Diversity/Equity/Inclusion) Moment, New Purpose, Commitments and Values, Safety, Sustainability’와 관련한 주제를 설명하고, 폴리미레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폴리미레 직원들은 LYB의 DEI 향상을 위한 노력, ‘Recycling Business’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폴리미레의 Recycling Business의 수익성 향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Sustainability’와 ‘Circular Econom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폴리미레가 LYB의 지원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Decarbonization and Circularity’ 분야의 선도적인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사노사협력팀 이정균 팀장



2024 준법 준수 교육(Compliance Training)

지난 3월 13일, 폴리미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준수 교육(Compliance Training)을 실시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준법 경영 관련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예년과 다르게 금년은 외부 변호사를 초청하여 법적 요구사항인 준법 준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와 더불어 기획팀 주관하에 당사 규정에 따른 행동 양식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금번 강의는 청탁금지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방식들을 고수하지 않고 변화된 법령에 따라 과거에 했던 방식을 재검토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금번 준법 준수 교육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하자”는 교훈을 전 직원에게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폴리미레는 지속적인 준법 준수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획팀 유민희 과장



인사동정

승진	신설	부서이동
2024. 1. 1.부 제조담당임원 이길중(상무)	2024. 1. 1.부 울산PP(UPP) 영업팀 전규범, 엄준식, 박홍준, 임채휘	2024. 1. 1.부 생산1팀 고종현 공정팀 이학철
입사	팀장임명	
2024. 1. 1.부 공무팀 김상준	2024. 1. 1.부 UPP 영업팀 전규범 사업자산관리팀 김승현	
2024. 1. 4.부 신입 현장전문직 김유선, 김신원, 김수용, 최산, 배청훈, 신동관		

시차출퇴근제도 확대 시행

지난 3월 4일부로 기존에 본사 직원들에게만 적용해 오던 시차출퇴근제도를 공장 일근 근무자에게까지 확대했다. 폴리미레의 시차출퇴근제도는 07:00~10:00 시간대에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집중 근무 시간대(09:00~10:00)와 공동 근무 시간대(10:00~16:00)를 정해 집중 근무 시간대에는 회의 등을 지양하고 공동 근무 시간대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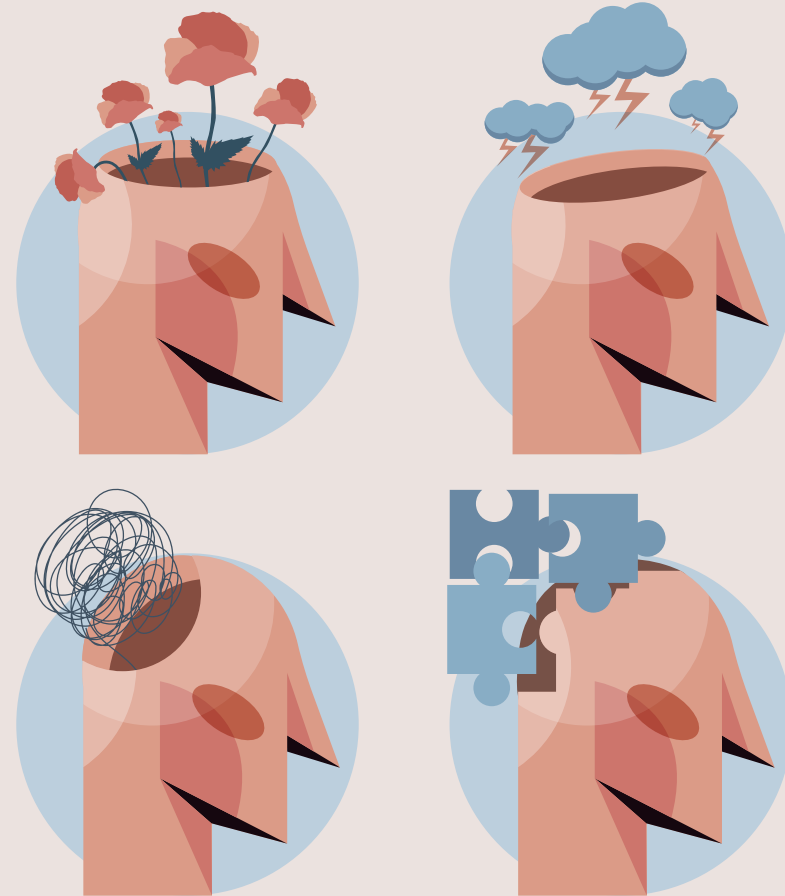
앞으로도 폴리미레는 직원의 Work-Life Balance 향상과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사노사협력팀 이동준 주임

왜 지금 다시 철학인가

정하윤(미술사가, 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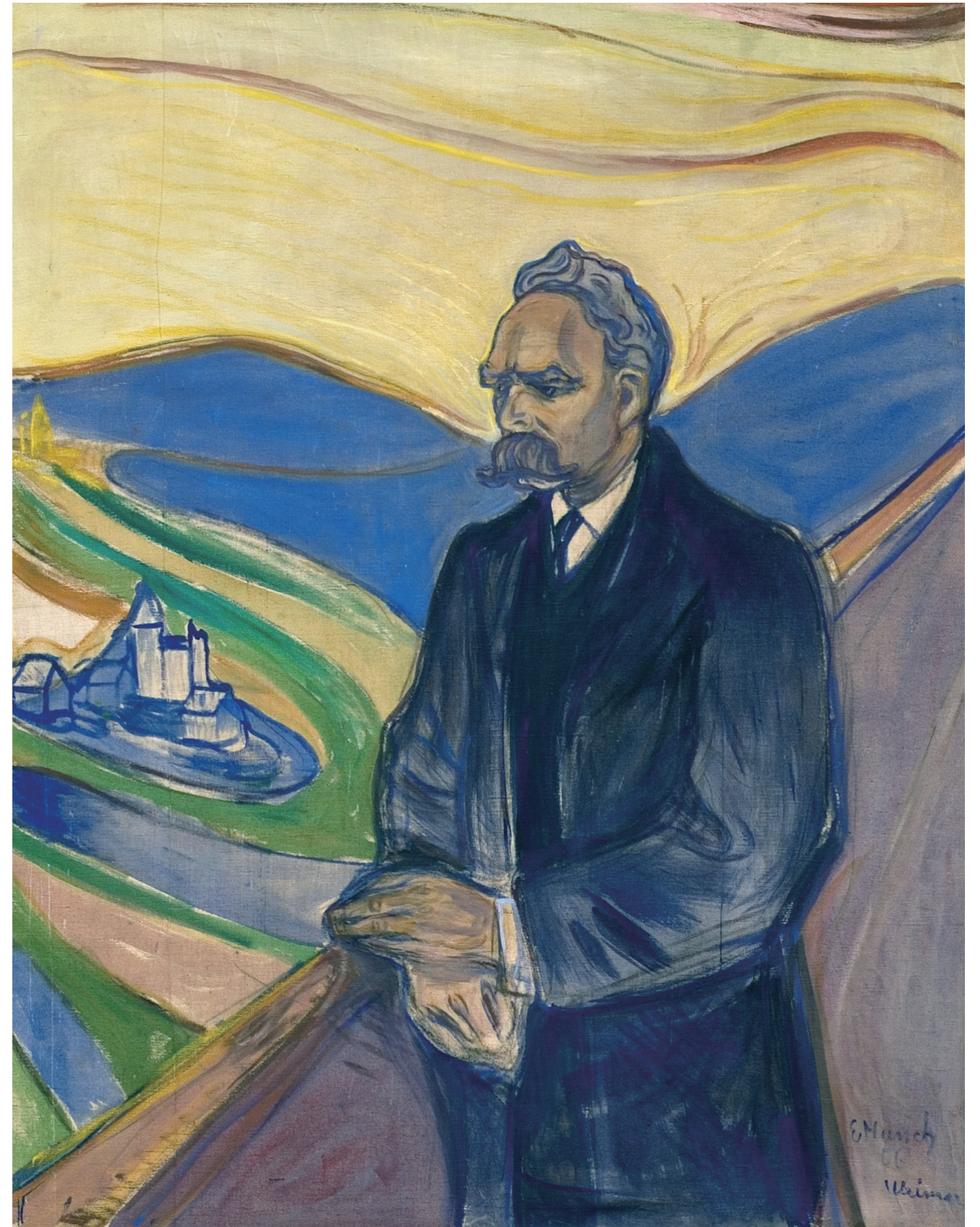
요즘 서점가에 붙고 있는 ‘철학 바람’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세상살이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인생의 맛을 좀 본 이들에겐 고뇌와 답답함을 풀어갈 실마리가 절실하니 선인들의 해안에서 답을 구해보려 할 법도 하다.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 사이 관계가 험겨울 때, 롤모델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좋은 책, 한 점의 그림, 울림 있는 영화 한 편이 어둠 속 한 줄기 것처럼 방향을 일러주기도 한다.



온오프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둘러보았다면 쉽게 눈에 띄는 책들이 있다. 《마흔에 읽는 니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니체의 말》, 《오십에 읽는 주역》, 《강신주의 장자수업》 등등.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뇌섹남’ 하석진 배우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탐독하는 모습이 소개된 이후로 해당 도서의 판매율이 25배 가까이 뛰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아니 방송에 소개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이에게 읽혀온 그 책은 지금도 같은 주제의 다른 책들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철학자들의 익히 들어온 명언, 단순히 그것이였다면 니체니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에 현대인들이 이토록 귀를 기울일 리 없다. 타인의 욕망을 좇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눈치 보지 말고 너 자신으로 살라고, 행복은 네 안에 있다고… ‘그걸 누가 모를까 봐?’, ‘나도 다 알고 있다고’, ‘말처럼 쉬우면야…’ 싶지만, 지금 우리는 왜 다시 이 이야기를 새해 다짐으로 삼고 다음 챕터를 위한 마음가짐을 고쳐가며 주목하고 열광하는 걸까?

간단한 이치도 실천하며 살기 힘든 세상

뻔한 말이지만 그 이치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테다. 사회 초년생에게도 물론 인생의 지침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회생활을, 인생을 좀 살아본 30~40대에게 울림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 이것이 좋은 소리인 줄 왜 모르겠으며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고 경쟁과 견제가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철학자들의 조언과 충고대로 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몽크가 그린 니체



요즘의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불안해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불린 쇼펜하우어가 “얕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중)고 했지만 현실적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나 자신에 집중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니 작심삼일이라도 계속해서 마음과 행동을 리셋해야 한다.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방법은 3일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것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오늘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라는 말에 감명을 받았다 치자. 계속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짜증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귀한 결심이 이틀 만에 흐지부지되었다면? 다시 쇼펜하우어 책을 집어 들고 또 한번 다짐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보면 우리 손에 들려진 철학책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 고자 하는 우리들의 처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우리에겐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하다

왜 굳이 철학자의 말이나 사상을 빌려 세상살이에 마음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는다면, 슬프지만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믿을 만한 어른의 부재. 어쩌면 우리는 ‘믿을 만한’ 어른을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끈대의 잔소리 정도로 흘려버릴 이야기 말고 간절한 물음에 힘을 실어줄 믿을 만한 한마디. 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 세계 곳곳의 세태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

온 세상에 리더십이 부재한 시대다. 점차 첨예해지는 이념 간 갈등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택하는 세태를 낳았고, 심화되는 세대 갈등도 심각하다. 정치, 종교, 교육, 가정... 모든 분야에서 리더에 대한 기대나 존경은 끝도 없이 추락 중이다.

어느 곳에서라도 존경할 수 있는 진짜 리더의 말과 행동을 간절히 듣고 보고 싶다.

철학이 부재한 기술에는 의미도 미래도 없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역설적으로 기술이 너무 발전한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겠다. 이제 겨우 챗GPT랑 안면을 톤 정도인데, S사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첨단기술이 우리 곁에 너무 빨리, 너무 가까이 다가와 버렸다. 이러한 기술 급발전의 시대에 우리가 철학을 다시 붙잡는 것은, 인문학이 기반이 되지 않는 기술 발달은 결국 인간을 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어서일 거다.

물론 필요한 위기감이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을 보자. 그의 이름을 들으면 TV나 레이저 같은 기술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백남준 작품의 핵심은 철학이다. 기술을 통해 세계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를 보여주고, 분야 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 다른 말로 기술을 통한 ‘통합’의 가능성이 그의 모든 작품을 굳건히 받치는 동시에 일관된 방향으로 견인한다. 백남준은 기술을 위해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그의 철학, 즉 ‘통합’을 이룬 더 멋진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다. 기술이 아닌 철학이 먼저였던 거다. 작품 기저에 자리한 철학이 없었다면 백남준의 작품은 그저 기술의 집합체였을 테고, 더 앞서는 첨단기술이 나오면서 그의 이름은 미술사에서 사라졌을 거다.

철학이 부재한 기술에는 의미도 미래도 없다. 기술을 이끄는 인문학적 성찰이 없다면, 기술 자체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버릴지도 모른다. 지금 붙고 있는 철학책 바람이 (비록 그것이 철학책을 빙자한 자기 계발서라 할지라도) 반가운 이유다.

어떤 이유에서 시작된 철학 바람이든 모쪼록 이것이 한낱 봄바람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쉽게 풀어낸 철학책을 통해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가까워지고 철학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란다. 거기에 나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가 있을 테니까. 부디 철학 바람이 돌풍이 되어 강하고 오래 지속되기를!



우리 삶을 위로하는 미술, 미술에 담긴 철학

우리가 삶을 위로받고 태도를 정하기 위해 철학을 필요로 한다면, 철학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책과 미술, 영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술을 가까이에서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다양해지고, 이런 기회를 기꺼이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반가운 마음부터 든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는 1906년, 존경해 마지않던 니체의 초상을 그렸다. 비록 생전 니체를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뭉크는 니체 철학에 심취해 있었고, 니체 사망 6년 후 그를 그림으로써 니체를 추모했다.

뭉크가 그린 니체의 초상은 그의 대표작 <절규>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초상의 배경은 <절규>의 배경과 이어진다고 해도 무방하리만큼 흡사하다. 두 작품 모두에서 보이는 구불거리는 색면으로 이루어진 하늘은 정신 환각 증세를 암시하며, 주인공 뒤로 가로지르는 가파른 기둥기의 다리는 불안한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뭉크가 니체의 초상에서 환각과 불안에 주목한 것은 이것이 평소 그가 니체와 유대감을 느낀 지점이기 때문이다. 뭉크는 어릴 때부터 허약했고, 누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정신병을 목격하며 그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다. 니체 또한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에 평생토록 시달렸다. 뭉크는 니체가 갖고 있던 삶과 죽음, 정신병에 대한 관심과 공포에 동질감을 느끼고 니체의 철학에 더욱 쉽게 매료될 수 있었던 거다(니체 철학의 도움인지는 모르겠으나 뭉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81세까지 삶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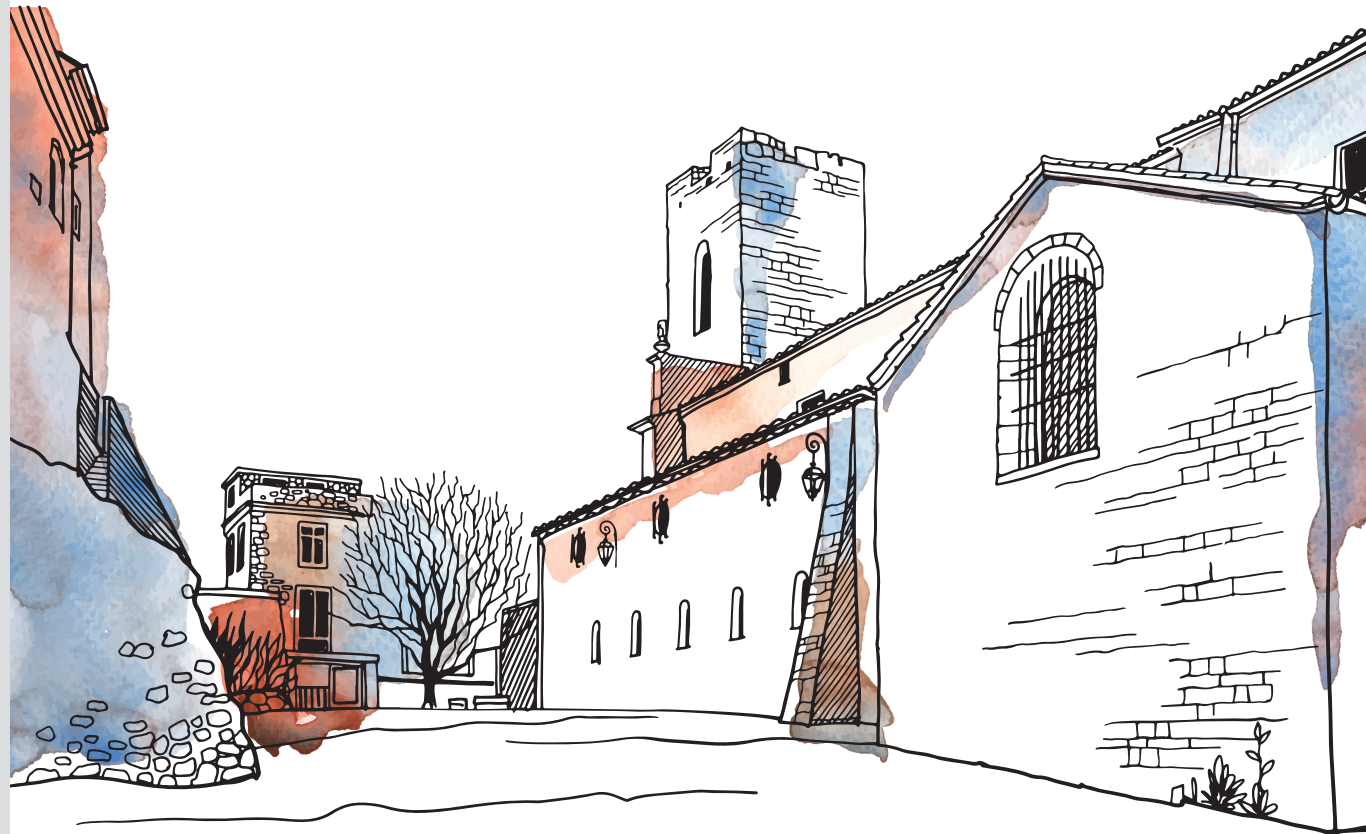
니체를 그린 뭉크의 작품은 두 점 존재하는데, 1905년 버전은 노르웨이의 뭉크미술관에, 1906년 버전은 스웨덴의 티엘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공간, 시간, 취향이 모이는 곳

‘지역’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 : 로컬리즘(Localism)

골목골목을 걸어 커피 맛이 좋다는 카페를 찾아가고
햇플로 떠오른 전통시장에서 먹을거리 탐방에 나선다.
취향에 꼭 맞는 볼거리가 있어 설렘을 주는 공간이거나
시간이 켜켜이 쌓여 고유의 스토리를 지닌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지역 기반 문화가 피어나는 곳. 우리는 그곳을 ‘로컬(Local)’이라 부른다.
단순히 SNS 인증 슷을 부르는 맛집과 핫플을 넘어 사람과 공간의 상생,
시간을 되돌아보는 도시재생, 트렌드와 건축의 흐름까지.
도시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는 골목길로부터 시작된 ‘로컬’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다양한 면면을 들여다본다.

천국천(건축사,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골목상권’ 춘추전국시대

최근 다양한 공중파와 OTT 매체를 통해 골목상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0~1990년대에 일찍이 시작됐던 이태원, 신촌, 이대, 대학로, 홍대를 거쳐 신사동, 청담동, 인사동, 북촌, 성수동으로 이어진 ‘골목의 힘’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도시의 획일화, 규격화, 단순화에 식상한 사람들은 일상적 공간과 장소에서 새로움을 갈망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색다른 취향과 경험을 자극할 법한 건축물, 디자인, 상품을 꾸준히 찾는다. 날로 발달하는 SNS 마케팅 영향으로 ‘인스타그램머블(인스타그램에 등장할 만한)’ 가게만이 살아남을 듯한 기세다. 개성 넘치는 골목이 전국적으로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닮아가며 MZ세대를 유인하는 곳으로 남지 않으려면 애초에 가졌던 철학과 고유성을 지키면서 다시 찾고 싶은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역의 특색을 간직한 공간이 자칫 ‘골목길 표준화’에 휩쓸리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시간이 흐른 장소를 다시 되돌아보는 움직임 또한 주목할 만하기에 안심이다.

골목에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한낱 유행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깊숙이 와닿을 매력적인 골목길을 만들려는 도시재생, 건설 환경이 주목된다.

공간, 시간, 인간 중심의 도시 기획은 기억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공간력, 장소성을 키우려 한다. 단순한 물리적 재생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스토리, 추억, 감정이 쌓이게 해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공간력을 키워간다. 이런 정서적 연결이 탄실한 공간에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결합하면 장소성을 지닌 골목, 지구, 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 획일화, 상품화한 ‘가짜 장소’가 아닌 인간 체취 담긴 ‘진짜 장소’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정 그런 곳에 매료된다.



도시 고유의 매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 골목길은 로컬의 중요 자원이다. 지역 감성을 빚고 쌓아가는 역사와 서사의 장소다. 지루함에서 벗어나 즐거움, 안락함, 로맨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골목길이 많아지면 좋겠다.

지역의 새로운 가치, 로코노미(Loconomy)

로컬 감성 자극하며 핫플로 인증받아 이른바 로코노미 트렌드가 된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진도 대파 버거, 보성 녹돈 버거, 한라봉 생크림빵, 남해 마늘 바사삭 등의 식품이 인기다. 이미 이름난 곳의 전통시장은 평일 오후에도 발 디딜 틈이 없고, 식품 역시 품질 대란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엔 MZ세대가 찾은 전통시장 맛집 사진이 그득하고,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이들을 겨냥한 로코노미 마케팅이 한창이다.

과연 전통시장의 무엇이 이들을 이끌고 로코노미 식품을 선택하게 하는 걸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골목 감성이, 서로 차단되고 가로막히자 동네 주변, 사소한 것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나름의 일상이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다. 여행업계에선 MZ세대의 이러한 성향을 ‘로컬 문화와 여행 트렌드의 결합’으로 분석한다. 단순히 관광 명소에 둘러 둘러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직접 지역의 특징적 요소를 먹고 만들고 즐기며 체험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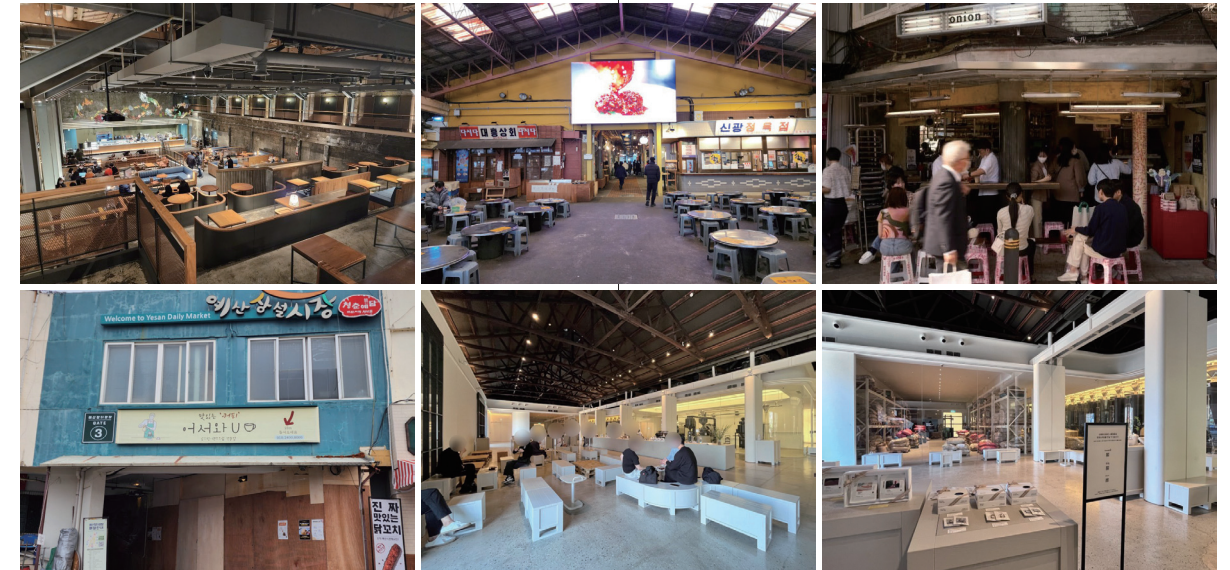
MZ세대가 전통시장을 찾는 횟수가 늘자 MZ세대 상인들도 전통시장으로 터전을 옮겼다. 전에 없던 먹을거리나 레스토랑이 전통시장에 등장한 것도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실제로 평일에 찾은 서울 광장시장은 낮 시간인데도 가족 단위부터 외국인 관광객,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세대까지 찾는 이가 다양했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과 OTT 다큐멘터리에 자주 소개되는 서울의 광장시장, 경동시장과 충남 예산시장 등은 이미 이름 높은 관광 명소다.

찾는 이가 많아지니 마케팅의 귀재들이 모인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근린시설이 MZ세대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기업들은 직접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이처럼 로코노미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치소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로컬리즘은 결국 공간과 건축으로 드러난다

필자는 건축사로서 건축에 몸담은 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컬리즘이라는 트렌드를 사회적, 공간적, 건축적 맥락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됐다.

날이 갈수록 우리 주변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건축과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동네나 주변의 화려하진 않지만 감성적이고 편안한 레트로 공간들을 찾아 심신의 힐링을 도모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됐다. 이처럼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특색 있는 개성 만점 공간들이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면서 SNS 등에 힘입어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로컬 스페이스 브랜딩(Local Space Branding)은 특정 지역의 문화와 콘텐츠를 가치화하고 그것을 공간과 장소에 담아 전략적으로 소비자 내지는 방문자 중심으로 기획,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인 서울 경동시장의 '스타벅스 경동1960점', 부산의 '모모스커피' 본점 등은 각각 극장과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옛 건물이 가진 로컬의 정취를 살린 것이다. 서울의 '어니언 광장시장' 역시 광장시장 안의 오래된 공간을 카페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한 경우다. 기존의 어니언 카페들도 오래된 공간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니언 카페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성수점과 현대그룹 계동 사옥 옆 한옥을 개조한 안국점이 그랬다. 미아점도 마찬가지로 서울강북우체국으로 쓰던 건물의 내부를 헐고 만들었다.

이 같은 로컬 공간 리모델링은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데, 지역 특성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살린 공간들이다. 건축사들에게 로컬은 창의력과 직결되는 요소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이면 같은 건축자재라도 운송비가 더 든다. 건축물을 짓는 국가가 바뀌면 해당국 인부의 숙련도에 따라 건축물의 디테일도 달라진다.

세계적인 건축사들은 이렇게 불리한 변수들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삼는다. 해당 지역에서만 나는 재료를 사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멋진 건축물을 짓는 일이 좋은 예다. 스위스 건축사 페터 츠토어의 산 중턱에 있는 교회당과 팔스 온천장,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건축사 구마 겐고의 돌 박물관도 비슷한 경우다. 각각 그 동네의 나무껍질과 그 동네에서만 나는 돌을 사용했다. 그야말로 로컬 건축이다. 특이한 환경을 활용해 독특한 건축물을 만든 것이다.

로컬리즘이 왜 파급력이 있을까? 수요와 공급이 맞기 때문이다. 수요는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하려는 각종 사업주다. 쇠퇴한 지역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 토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로컬 콘텐츠를 동원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하는 각종 지자체에게도 로컬리즘은 훌륭한 대안이 된다. 이에 맞춰 새로운 '로컬 힙'도 꾸준히 유입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로컬리즘은 단독 원천기술이 아니라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분위기기 때문이다. 앞으로 로컬리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능하는 것도 공간과 트렌드를 읽을 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회, 연극, 뮤지컬 그리고 각종 공연까지

바쁜 일상에서도 컬처 라이프는 못 잃어!

날이 따뜻한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일에만 몰두하고 있진 않은지?
계절 감각도 잊은 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출근하진 않았는지? 바쁠수록 틈새 틈새 실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문화생활은 사치가 아니다. 문화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회복의 시간이다.

일상이 뻘뻘할 당신을 위해 대신 탐색한 문화 정보를 소개한다.

이 중 하나만 골라 눌러봐도 다음 날이 가볍고 이야깃거리가 풍성해질 것이다.



Performance

〈여수 월드서커스〉

내한 공연처럼 거창하지도, 추억처럼 비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역동적인 서커스를 보고 싶다면, 〈여수 월드서커스〉를 찾자.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여수월드서커스아트홀에 가면 우크라이나 누가스(Nugas) 팀이 펼치는 생생한 서커스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배우들의 짜릿하고 입체적인 공연을 보는 동안 절로 몰입하게 된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배우들의 묘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찔함과 긴장감을 주고, 한눈을 팔 수 없을 만큼 또렷한 한 장면 한 장면은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뭇가 머리로는 익숙한데 실제로 경험하는 서커스의 느낌은? 아마도 막이 내리는 순간 안도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될 것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저글링, 클라이밍, 에어리얼 액트, 핸드스탠드, 롤라볼라, 요가 애크러벳, 스트렝스 스킵, 컨트롤 밸런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고,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반려동물 동반 고객도 입장이 가능하다(단, 반려동물은 소형견에 한하며 이동 가방과 배변 봉투 지참이 필수다).

♥ Poly's pick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서커스에 대한 향수를 마구마구 공유하고 싶다면, 가까운 누군가와 함께 가보자.



- 기간 : 상설
- 시간 : 목~화요일 11:00, 14:20, 16:20/수요일 휴관
- 장소 : 여수월드서커스아트홀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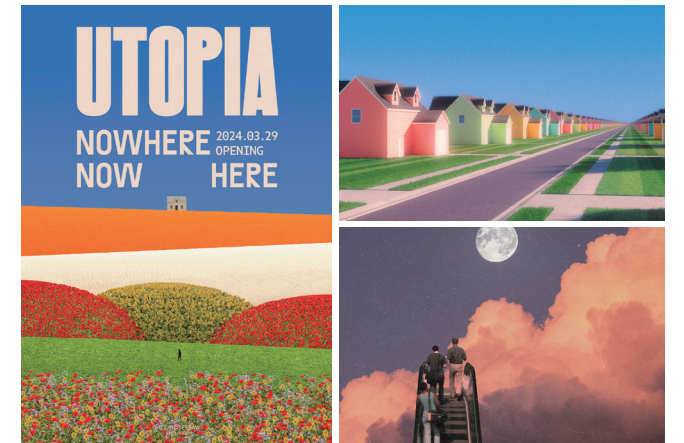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

북합문화공간 그라운드스시소 성수에서 소설가 김초엽과 국내외 초현실주의 아티스트 7인이 함께하는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전이 열린다. 김초엽 작가의 단편 〈공생 가설〉을 각색한 스토리텔링에 따라 영화적 연출과 소설 문법을 기반으로 기획한 전시 공간은 일곱 아티스트가 던져주는 기억의 조각을 따라 유토피아로 향하는 7개의 챕터, 200여 점의 디지털아트로 이어진다. 다음의 관람 포인트 3가지를 이해하고 가면 꽤 재미있다. 첫째 국내 최초 SF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전시 세계관 둘러보기, 둘째 일곱 아티스트(안디카 라마디안, 나승준, 마리아노 페치네티, 헤이든 클레이, 스티븐 오를란스, 발렌틴 파바조, 제시 스톤)가 선보이는 초현실주의 전시 둘러보기, 셋째 일상을 완전히 벗어난 듯한 꿈같은 순간 둘러보기.

“우리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공생 가설〉 중) 전시 공간 ‘NOWHERE(목적지: 노웨어)’ 존에서는 그 기억 속 미지의 세계(유토피아)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상상을 특정 프로그램으로 측정한다. 이어지는 ‘NOT A DREAM’ 존에서는 일곱 아티스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토피아의 형상이 테마별로 펼쳐지는 장면을 만난다. 그리고 마무리, ‘NOW HERE(언제나 유토피아)’ 존에선 일곱 아티스트의 작품에서 우리 각자가 꿈꾸는 유토피아와 가장 닮은 이상향을 찾아내고 이를 마주해본다.

♥ Poly's pick

핫한 전시 플랫폼, 핫한 소설가, 핫한 아티스트... 모두가 핫한 곳에서 현실에선 잊고 살던 나의 유토피아를 확인하고 힘을 내고 싶다면.



- 기간 : 2024. 3. 29.~10. 13.
- 시간 : 10:00~19:00(입장 마감 18:00)/7월 1일, 8월 5일, 9월 2일 휴관
- 장소 : 그라운드스시소 성수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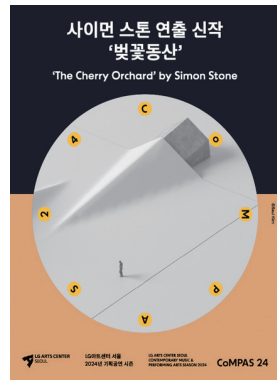
사이먼 스톤 연출 <벚꽃동산>

LG아트센터가 제작하고 세계적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한국 배우들과 함께 만드는 연극 <벚꽃동산>이 관객맞이에 나선다. 위대한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원작을 각색한 것으로, 고전의 틀을 깨고 우리 이야기로 새롭게 구성했다. 원작이 19세기 몰락한 여성 지주의 집안 이야기를 소재로 격변기에 처한 러시아의 사회상을 그렸다면, 이번 연극은 배경을 지금의 서울로 바꿔 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보여준다.

“10여 년 전 아들의 죽음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한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어쩐지 그녀가 마주한 서울은 자신의 기억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 떠들썩한 사회 분위기, 자유롭고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보다 그녀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데...”

여전한 리빙 레전드 전도연이 여주인공 ‘류바’를, <오징어 게임>, <파우스트>의 박해수가 냉철한 상인 ‘로파한’을 각각 연기하며, 두 배우와 함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으로 이뤄진 빈틈없는 조함미 30회의 공연 기간 내내 원캐스트로 대극장 무대를 가득 채운다.

사이먼 스톤은 런던 내셔널시어터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 하우스까지 경계 없이 활약하는 천재 연출가로, 고전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데 압도적 능력을 보여준다. <벚꽃동산> 역시 그동안 무대에서 되풀이되던 고전은 잊어도 좋을 만큼 원작을 새롭게 해석했다. 한국 영화와 책을 200편 넘게 섭렵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심취한 그가 염원하던 한국 배우들과의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이기에, 잔뜩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Poly's pick

원 캐스트여서 라인업 고민 없이 보고 싶던 배우들의 연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 연출가의 뛰어난 고전 해석력을 확인하는 건 기본.

- **기간** : 2024. 6. 4.~7. 7.
- **시간** : 화~금요일 19:30, 토·일요일, 6월 6일 15:00/월요일 휴관
- **장소** : LG SIGNATURE 홀



Exhibition

리:피움미술관

미술관 이름의 ‘리:피움’은 ‘다시, 피어나다’라는 뜻이다. 고흥군 남양면의 폐교를 리모델링한 뒤 한지로 작업한 작품들을 전시해 자기하고 감성적인 미술관으로 꾸미고, 개관했다.

관람료(성인 6000원, 만 4~18세 3000원/음료 포함)를 내면 미술관에 입장할 수 있다. 1층에 3개 전시실, 2층에 2개 전시실이 있어서 공간을 이동하며 한지 특유의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담은 그림, 한지의 다양한 질감을 살려 표현한 조형 작품을 관람한다. 강미라 한지조형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다시 피어나다>, <고요>, <부서짐 그리고 맞섬>, ...) 중이며, 따로 판매하는 작품도 있다. 체험 예약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요일에 관계없이 최소 1일 전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리:피움미술관은 전시실과 병행해 꽃과 나무로 가득한 넓은 휴식 공간을 두어 감성 여행과 힐링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 휴식처가 돼준다.



♥ Poly's pick

우연히 혹은 계획적으로 들른 미술관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다감하고 느긋한 작품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 **기간** : 월~금요일 성인 기준 4인 이상 예약제(최소 1일 전 예약), 원할 경우 도슨트의 작품 설명과 미술관 소개 진행, 토·일요일 정상 운영
- **시간** : 10:00~18:00
- **장소** : 리:피움미술관



Exhibition

<STEVEN HARRINGTON : STAY MELLO>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올봄 스티븐 해링턴 전시를 선보인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해링턴은 캘리포니아의 밝은 색채와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 대변되는 사이키델릭 팝아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만화같이 유쾌한 그림을 통해 해링턴은 현대 도시의 모습을 특유의 유쾌한 시선으로 해석해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위안을 건넨다.

해링턴의 작업 세계를 국내 최초로 조망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판화, 드로잉과 더불어 나이기, 크룩스, 이케아 등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디자인 작품까지 총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영역을 넘나드는 해링턴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조명해, 어떠한 경계나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예술을 감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 Poly's pick

작가가 이번 전시를 기념하여 제작한 10m 너비의 대형 회화와 직접 디자인한 벽화의 스케일을 느껴보시길!



- **기간** : 2024. 3. 7.~7. 14.
- **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장소** :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



Exhibition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SeMA 백남준기념관은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현대 예술가 백남준(1932~2006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개관전이 진행 중이다. 김상돈, 레벨나인, 김경호, 송면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및 작가, 기획자가 함께한 협력 전시로, 1984년 30여 년 만에 모국을 방문한 백남준의 기억과 상상의 여정을 따라간다. 기념관의 고정 프로그램인 ‘백남준 이야기’, ‘백남준 버추얼뮤지엄’, ‘백남준의 방’, ‘백남준에의 경의’에 맞춰 4부로 구성돼 있으며, 1984년을 출발점으로 백남준의 생애를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은 채 비순차적으로 보여준다.

1부는 백남준의 주요 기억을 주제화하고 관련된 사유를 자료와 조형물로 엮은 열 편의 노트다. 2부는 백남준의 플렉서스 시절을 중심으로 구성된 멀티스크린 패널 스테이션이다. 3부는 백남준 생애의 시작과 끝을 연동하는 복합 설치전이다. 4부는 기념관 입구부터 중정과 실내 곳곳에 숨은그림찾기처럼 포진된 조형물들로, 백남준의 단상 혹은 철학을 조형적으로 풀어낸 디오라마의 역할을 한다. 온라인으로도 전시를 진행하며,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도슨팅’ 앱을 다운로드하면 무료로 상시 도슨트 안내를 이용할 수 있다.

♥ Poly's pick

어쩐지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많이는 알지 못하는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그의 자취가 남은 기념관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찬찬히 둘러볼 수 있다.



- **기간** : 상설
- **시간** : 기념관 화~일요일, 공휴일 10:00~19:00(입장 마감 18:30)/1월 1일, 월요일 휴관(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
- **장소** : SeMA 백남준기념관 1층 전시실, 온라인

2024년을 맞이하는 폴리미래인의 새해 다짐

“저의 새해 다짐은 []입니다!”

대표이사 미첼 킬린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5kg 감량하기] 입니다.

올 한 해 서울에 있는 동안만큼은 일주일에 최소 2회 수영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1km 이상씩 수영하여 5kg을 감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2팀 운영권 사원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가장이 될 준비 하기]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한 집의 '가장'이 되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이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미소 짓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2024년에도 ‘저축!’, ‘운동!’, ‘공부!’ 등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노력해 좋은 가장이 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생산1팀 김동민 대리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공조냉동기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하기] 입니다.

지난해 폴리미래의 'Safety First'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24년에는 환경 관련 자격증 2개를 취득해 생산1팀의 생산, 안전, 환경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안전환경팀 정태형 대리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요가 숙련자 되기] 입니다.

지난해부터 요가학원에 등록해 퇴근 후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계속하면서 자세교정과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빈야사, 하타 등의 동작을 하고 나면 아주 개운합니다. 새해에는 ‘스스로 머리 서기’ 동작을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WOW

생산2팀 유재경 사원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더 많은 근육과 경제 지식 쌓기] 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해가 바뀔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더욱 열심히 운동해 멋진 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짐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경제 관련 기사나 책을 많이 봅니다. 2024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팀 서성오 대리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하프 마라톤 완주하기] 입니다.

2024년에는 건강 증진을 위해 달리기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연습을 꾸준히 해 마라톤 하프코스에 도전하겠습니다.

기획팀 유민희 과장

저의 새해 다짐은
[오늘 할 일을 적어도 내일까지는 다 하기] 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게으름 때문에 미룬 일이 많았습니다. 2024년에는 게으름에 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YES!

생산2팀 황호인 과장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건강한 신체 만들기] 입니다.

2023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히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 올해에는 2023년에 못 했던 운동을 통해 체중 관리 및 근육량을 늘릴 계획이며, 그와 더불어 스트레스도 날려보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사업자산관리팀 황인성 사원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기] 입니다.

지난해에는 무리한 운동으로 다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무리하지 않는 적절한 운동과 관리로 건강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사우분들도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개발팀 김대인 주임

저의 2024년 새해 다짐은
[2025년 집 장만을 위한 저축하기]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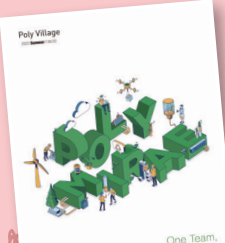
2024년에는 2025년에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을 것입니다. 2025년에는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그림 찾기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4년 봄호 사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두 사진 중 다른 부분이 5군데 있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
(pmc.magazine@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통권 50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김성조, 정주은, 심은서, 송희, 김강욱

Adstif HA822J

재활용 가능한 연포장용 PP 단일 소재 솔루션
PP Mono-Material Solution for Recyclable
Flexible Packaging

뛰어난 강도로 얇은 필름을 제작할 수
있으며, 높은 온도에서의 건조 공정에
대한 우수한 내열성을 제공합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PP 기반
포장재에 지속 가능한 단일 재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perience exceptional stiffness,
allowing for the production of thinner films
alongside impressive heat resistance
for high-temperature drying processes.
This innovative product heralds a mono-
material solution, providing a sustainable
for PP-based packaging.

